

# 간호대학생의 법의식과 인권의식이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조영미<sup>1</sup>, 김순희<sup>2\*</sup>

<sup>1</sup>선문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 Effects Legal Consciousness and Human Rights Consciousness on Gender Sensitivity of Nursing Students

Young-Mi Cho<sup>1</sup>, Sun-Hui Kim<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SunMoon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법의식, 인권의식이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시도되었다. 연구의 자료는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전라도 소재의 M, S대학의 간호대학생 22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Sheffe Test, Pearson's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성인지 감수성은 인권의식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576$ ,  $p<.001$ ), 다중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권의식과 성별로 나타났으며( $\beta=.552$ ,  $p<.001$ ,  $\beta=-.176$ ,  $p=.003$ ) 그 설명력은 36.1%였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성인지 감수성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인권의식의 정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legal consciousness and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gender sensitivity. Two hundred and twenty-four students from M and S university in Jeon-la province participated in the study from August to September 2022.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independent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SPSS software.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 was found between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gender sensitivity ( $r=.576$ ,  $p<.001$ ), and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gender affected gender sensitivity ( $\beta=.552$ ,  $p<.001$ ,  $\beta=-.176$ ,  $p=.003$ ) with a total explanatory power of 36.1%. Gender sensitivity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increase nursing student gender sensitivity. In terms of content, it is suggested that measures to raise levels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be considered.

**Keywords** : Nursing Student, Legal Consciousness, Human Rights, Consciousness, Gender Sensitivity

### 1. 서론

최근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살인사건이나 스포츠계 및 연예계 지도층의 성추행, 성폭행 사건들의 보도는 우리 사회의 성불평등 및 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여실히 보

여주는 계기가 되었다[1]. 성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대중이 마스크에서 접하게 된 단어가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다.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은 성차별 및 성불평등을 감지하고 그 영향력을 인지하여, 불합리한 상황을 비판하며 이를 변화시

\*Corresponding Author : Sun-hui Kim(Kyung Hee Univ.)

email: s6812@hanmail.net

Received November 28, 2022

Accepted February 3, 2023

Revised January 2, 2023

Published February 28, 2023

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2].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는 2018년 미투(ME TOO)운동을 계기로 성폭력 사건에서 용어가 인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중에게 알려졌다. 성과 관련된 문제는 학문의 상아탑이라 부르는 대학 내에서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에서부터[3],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4], 가정 내 폭력 등의 사건들[5] 역시 성평등이나 성인지 감수성과는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신장 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자율적이고 자의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로,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깊게 이해하고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시기로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기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대학생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은 다름을 인식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2].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성관련 된 것으로 성인지 감수성은 성지식이나 성에 대한 태도가 높을수록 높음을 알 수 있었다[6-8]. 또한,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대학생이 성적자율성이 높고, 성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이며, 음란물에 적게 접촉하며, 보수적인 성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9], 성인지 감수성이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높아 성폭력에 피해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0].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은 간호 전문직관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11] 전문인으로써의 성장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법 의식(Legal Consciousness)은 법에 대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식이나 규범의식으로 정의하고 있다[12]. 또한, 사회공동체 안에서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가지는 법적 현상에 대해 인지적, 감정적, 평가적으로 행동하고 의식하는 개념을 뜻한다[12]. 이러한 법의식은 개개인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지속되기도 하며, 사회구성원들은 법을 통해 자유를 보장받고,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며, 공정한 법의 실현을 통해 사회가 유지된다고 평가한다[13].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법의식을 높이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고 법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13]. 간호사의 경우 법지식과 법의식이 실천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나[14] 간호대학생의 법의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법의식과 상관이나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에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법의식의 정도를 알아보고 성인지 감수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인권 의식(Human Rights Consciousness)이란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태도를 이야기 한다[15]. 인권은 인간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권리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사이 존재하는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는[16] 관점에서 앞으로 간호사가 되어 환자를 돌보게 될 간호학생들에게 중요한 개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인권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17] 고등교육에서는 필수적인 교육과정은 아니다.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18,19]. 간호학생의 경우 간호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하고 있지만, 타인의 생명을 다루고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로 성장할 간호대학생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권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법의식, 인권의식, 성인지 감수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법의식, 인권의식, 성인지 감수성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법의식, 인권의식,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법의식, 인권의식, 성인지 감수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 2. 본론

### 2.1 연구방법

#### 2.1.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법의식, 인권의식,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법의식, 인

권의식이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1.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대학생으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휴학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최소 1학기 이상의 학기를 경험한 자이며 학년별로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윤리적인 고려를 위해 기관의 허락을 받았다. 먼저 과장과 면담하였고 학과의 승인을 받아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고 설문은 익명성을 보장하여 어떠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작성하지 않음을 알려주었다. 설문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 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며 연구의 종료와 함께 자료가 폐기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설문은 구글 설문지를 통해 설문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동의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가 없을 시 설문문을 작성하지 않도록 하였고, 어떠한 설득이나 권유는 없었다. 설문이 배부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설문을 전송한 224명만 자료에 사용하였다.

## 2.1.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2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전라도 지역 M과 S대학교 간호대학생 2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중간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그리고 예측변수 12개를 지정하였고 최소 표본수는 184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224명이 연구에 참여하여, 최소 표본수에 충족되었다.

## 2.1.4 연구 도구

### 2.1.4.1 법의식

법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곽한영[20]이 개발한 척도와 이 척도를 사용한 이영수[21]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법의식은 13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그렇지 않다'가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법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법의식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71로 나타났다.

### 2.1.4.2 인권의식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박봉규[22]가 개발한 인권의식 도구를 사용하였다. 인권의식 도구는 평등, 존중, 자유에 대해 각 권리와 의무를 측정하며, 모두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의식의 권리에서 스스로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노력할 권리와 자신의 인권 침해에 저항할 권리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무에서는 타인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다. 본 도구는 Likert 5점 평정척도로서 1점에서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의[22] 신뢰도 Cronbach's  $\alpha$ =.75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95이었다.

### 2.1.4.3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두 개의 하위 요인인 젠더의식과 양성평등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인지감수성의 척도는 총 22개 문항으로 젠더의식 10문항, 양성평등의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젠더의식의 척도는 한국성폭력 상담소[23]에서 활용하는 척도, 양성평등의식 척도는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척도 단축형[24]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성인지감수성 젠더의식의 신뢰도 Cronbach'  $\alpha$ =.729, 양성평등의식의 신뢰도 Cronbach'  $\alpha$ =.959, 전체의 신뢰도 Cronbach'  $\alpha$ =.93으로 나타났다.

## 2.1.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법의식, 인권 의식,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법의식, 인권의식,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법의식, 인권의식,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 사후 분석은 S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법의식, 인권의식,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Table 1. Differences in Legal Consciousness,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Gender Sensitiv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24)

		Legal Consciousness					Human Rights Consciousness				Gender Sensitivity			
		N	M	SD	t or F	p	M	SD	t or F	p	M	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40(17.9)	2.87	0.51	0.64	0.43	4.06	0.73	0.06	0.80	3.65	0.74	9.09	<.00
	female	184(82.1)	2.93	0.48			4.09	0.69			3.98	0.60		
age	20-24	144(64.3)	2.95	0.50	0.91	0.41	4.07	0.73	0.19	0.83	3.95	0.64	0.66	0.52
	25-29	45(20.1)	2.84	0.42			4.14	0.62			3.92	0.58		
	above 30	35(15.6)	2.90	0.48			4.08	0.68			3.81	0.70		
			25.37±5.92											
Grade	1	51(22.8)	2.94	0.40	0.22	0.89	4.00	0.76	2.76	0.04	4.00	0.67	2.04	0.11
	2	37(16.5)	2.97	0.44			3.96	0.71			3.72	0.81		
	3	74(33.0)	2.90	0.51			4.04	0.72			3.88	0.62		
	4	62(27.7)	2.90	0.55			4.30	0.59			4.02	0.50		
Religions	christian	51(22.8)	2.96	0.42	0.82	0.49	4.18	0.64	1.50	0.22	4.05	0.57	0.91	0.44
	catholic	14(6.2)	3.04	0.60			3.83	0.59			3.83	0.82		
	buddism	10(4.5)	3.05	0.57			4.35	0.85			3.94	0.55		
	none	149(66.5)	2.89	0.49			4.06	0.72			3.88	0.65		
Siblings	only child	16(7.1)	2.83	0.36	0.80	0.52	3.99	0.74	0.55	0.70	3.87	0.68	0.59	0.67
	1	115(51.4)	2.91	0.51			4.06	0.71			3.87	0.65		
	2	67(29.9)	2.91	0.49			4.09	0.71			3.97	0.65		
	3	15(6.7)	3.12	0.44			4.30	0.63			4.05	0.51		
	4 more	11(4.9)	2.97	0.39			4.22	0.63			4.05	0.59		
Exposure time to Mass media	less 1h	7(3.1)	2.82	0.90	1.21	0.31	4.26	0.74	1.61	0.17	3.95	0.47	0.89	0.47
	1-2h	37(16.5)	3.00	0.48			4.13	0.70			3.91	0.64		
	3-4h	117(52.2)	2.92	0.46			4.14	0.69			3.98	0.60		
	5-6h	38(17.0)	2.97	0.43			3.83	0.71			3.75	0.67		
	above 7h	25(11.2)	2.75	0.51			4.13	0.71			3.92	0.80		
Living Types	with family	127(56.7)	2.91	0.50	0.04	0.96	4.11	0.73	1.51	0.22	3.96	0.64	0.95	0.39
	dormitory	25(11.2)	2.92	0.50			4.25	0.63			3.95	0.56		
	by own	72(32.1)	2.93	0.45			3.99	0.67			3.84	0.67		
Satisfaction of Major	unhappy	14(6.3)	2.89	0.38	0.34	0.80	4.06	0.79	2.03	0.11	3.98	0.65	4.14	0.01
	so-so	97(43.3)	2.95	0.46			3.97	0.75			3.76	0.68		
	happy	85(37.9)	2.88	0.48			4.16	0.64			4.03	0.58		
	very happy	28(12.5)	2.94	0.60			4.29	0.61			4.13	0.55		
G.P.A	3	33(14.7)	2.97	0.50	0.20	0.90	3.95	0.71	0.53	0.66	3.67	0.69	2.42	0.07
	3.0-3.5	117(52.2)	2.92	0.49			4.11	0.74			3.93	0.66		
	3.6-4.0	55(24.6)	2.90	0.47			4.10	0.63			4.04	0.52		
	above 4.1	19(8.5)	2.89	0.51			4.14	0.67			3.93	0.70		
Economic Status	rich <sup>a</sup>	15(6.7)	3.30	0.34	5.19	0.01	3.98	0.68	0.21	0.81	3.81	0.68	0.55	0.58
	middle <sup>b</sup>	171(76.3)	2.90	0.48		a>b,c	4.09	0.70			3.95	0.63		
	poor <sup>c</sup>	38(17.0)	2.86	0.50			4.11	0.70			3.85	0.67		

\*G.P.A: Grade Point Average

\*Post hoc: Scheffe test

## 2.2 연구결과

### 2.2.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224명으로 남녀의 비율은 여학생이 184명(82.1%)으로 남학생의 40명(17.9%)보다 많았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5.37세로 나타났다. 연령은 24세 이하가 144명(64.3%), 25-29세가 45명(20.1%), 30세 이상의 대상자가 35명(15.6%)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는 1학년 학생이 51명(22.8%), 2학년 37명(16.5%), 3학년 74명(33%), 4학년 62명(27.7%)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149명(66.5%)으로 가장 많았다. 1명의 형제가 있는 학생이 115명(51.3%), 2명의 형제 67명(29.9%)였고 3명과, 4명, 외동인 학생이 각각 15명(6.7%), 11명(4.9%), 16명(7.1%)으로 나타났다. 매스미디어 노출시간(시청시간)은 하루 3-4시간이 가장 많은 117명(52.2%)이었고, 5-6시간 노출된 대상자는 38명(17.0%), 1-2시간 노출은 37명(16.5%)이었고, 7시간 이상도 25명(11.2%)이었다. 주거형태는 127명(56.7%)의 학생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4명(6.3%)이었고, 보통이 97명(43.3%), 만족과 매우만족은 각각 85명(37.9%), 28명(12.5%)으로 나타났다. 학점의 경우 3점미만은 33명(14.7%), 3-3.5점은 117명(52.2%), 3.6-4점은 55명(24.6%), 4.1점 이상은 19명(8.5%)이었다. 경제수준은 빈곤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8명(17.0%)이었고 중산층이 171명(76.3%), 부유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15명(6.7%)이었다[Table 1].

### 2.2.2 대상자의 법의식, 인권의식, 성인지 감수성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법의식의 정도는 5점 만점에  $2.92 \pm 0.48$ 점으로 나타났다. 인권의식은  $4.09 \pm 0.70$ 점이었고, 성인지 감수성의 정도는 5점 만점에  $3.92 \pm 0.64$ 점으로 나타났고, 하부요인 중 젠더의식은  $3.55 \pm 0.57$ 점, 양성평등의 정도는  $4.22 \pm 0.79$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 2.2.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법의식, 인권의식,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

법의식은 경제수준( $F=5.19$ ,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고 사후분석 결과 경제수준이 높은 대상자들이 그렇지 않는 그룹에 비해 높았다. 성별, 나이, 학년, 종교, 형제 수, 매스미디어 노출시간, 주거형태, 전공만족 그리고 학점에서 법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Table 2. Level of Legal Consciousness,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Gender Sensitivity (n=224)

	M±SD	Min.	Max.
Legal Consciousness	2.92±0.48	1	5
Human Rights Consciousness	4.09±0.70	1	5
Gender Sensitivity	3.92±0.64	1	5
Gender consciousness	3.55±0.57	1	5
Gender equality	4.22±0.79	1	5

인권의식은 학년( $F=2.76$ ,  $p=0.04$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성별, 나이, 종교, 형제 수, 매스미디어 노출시간, 주거형태, 전공만족, 학점 그리고 경제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성인지 감수성의 경우 성별( $t=9.09$ ,  $p<.001$ ), 전공만족( $F=4.14$ ,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나이, 학년, 종교, 형제 수, 매스미디어 노출시간, 주거형태, 학점 그리고 경제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Table 1].

### 2.2.4 대상자의 법의식, 인권의식, 성인지 감수성의 관계

대상자의 성인지 감수성은 법의식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권의식과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576$ ,  $p<.001$ )[Table 3].

Table 3. Correlation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N=224)

	Legal Consciousness	Human Rights Consciousness	Gender Sensitivity
Legal Consciousness	1		
Human Rights Consciousness	-0.03 (0.656)	1	
Gender Sensitivity	-0.016 (0.807)	.576 (<.001)	1

### 2.2.5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변수입력은 입력방법(Enter Method)을 사용하였고, 회귀 모형은 성인지 감수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성별, 전공만족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구축하였다. 성별과 전공만족은 더미변수화 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에서 Durbin-Watson

Table 4. Multiple Regression on Gender Sensitivity

(N=224)

Variables	B	SE	$\beta$	t	p	R2	Adj.R2	F(p)
(constant)	1.832	0.218		8.406	<.001			
Human Rights Consciousness	0.505	0.053	0.552	9.572	<.001			
Gender	-0.292	0.097	-0.176	-2.992	0.003	0.374	0.361	28.572 <.001
Satisfaction of Major(so-so)	0.162	0.148	0.064	1.091	0.277			
Satisfaction of Major(very happy)	0.123	0.08	0.094	1.536	0.126			

Reference Group: Gender \* Female, Satisfaction of Major \* unhappy

통계량은 1.643로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었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873-.984였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VIF))값은 1.017-1.145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과 인권의식에 의해 36.1%로 설명되었으며( $F=28.572$ ,  $p<.001$ ) 회귀분석결과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권의식( $\beta=.552$ ,  $p<.001$ ) 그리고 성별( $\beta=-.176$ ,  $p=.003$ )임을 확인하였다(Table 4).

### 3.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법의식, 인권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의 관계를 확인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법의식의 정도는  $2.92 \pm 0.48$  (5점 만점)로 나타나 중간인 3점에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법의식은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법의식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법의식은 인권의식이나 성인지 감수성과는 상관이 없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에서 연령이 법의식에 영향을 주어 연령이 높을수록 준법태도나 손해 감수 준법의 의지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나[25] 본 연구에서는 법의식은 나이나 학년과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법의식이 인권의식과 성인지 감수성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법의식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무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법의식의 정도가 중간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법의식은 사회적인 규칙이 인간의 내면화되면서 개인마다 각기 다른 그 정도가 다를 수

도 있고 하여[26] 그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의 정도는  $4.09 \pm 0.7$ 점(5점 만점)으로 확인 되어 중간보다 높은 정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고학년의 학생들의 인권의식의 정도가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인권에 대한 교과목은 저학년에서 인문사회 교과목을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저학년과 고학년의 수준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는, 고학년의 경우 환자를 직접 간호한 실습이 돌봄과 존중에 대한 경험으로 인권에 대한 의식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짐작되나, 더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인권의식은 성인지 감수성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 등과 같은 다문화 관점에서 연구된 것들이 많았고[18,19,26], 본 연구와 비교하여 인권의식과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연구를 찾기 힘들어 비교가 어려운 애로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인권의식이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져 인권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은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권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권의식이 높은 사람이 인권문제에 공감하고 인권을 존중하면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의지가 높다고 하였다[26]. 간호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 중 하나가 모든 인간을 같은 인간으로 대하는 인간존중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간호대학생에게 인권의식은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을 함양 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인권교육에 대한 방안을 교과적·비교과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의 정도는  $3.92 \pm 0.64$ 점(5점 만점)으로 확인되어 중간 값보다 높음

을 확인하였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성인지 감수성의 정도는  $3.85 \pm 0.61$ 점으로[27] 나타났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89 \pm 0.61$ 점으로[28] 나타나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정도와 비슷한 정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의 정도는  $2.87 \pm 0.69$ 점[29], 또 다른 연구에서 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의 정도는  $4.02 \pm 0.56$ 점[9]이었다. 본 연구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전공 만족이 높은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에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김순구[9]의 연구에서 역시 성별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가 났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같으나 다른 연구들에서는 [7,28] 성별에서 차이가 나지 않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권의식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 보면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많았는데, 성지식과 피임태도[8], 성태도 [28,30], 사회적 성숙도[28]가 있었다. 선행연구를 고려해 볼 때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성지식이나 성태도를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인식하는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인권의식을 높여 주어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성별이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각 성별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타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심을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간호대학생이 미래에 간호사가 되었을 때 환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환자를 존중하는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갖추면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간호사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더불어 타인과 자신의 평등, 존중, 자유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여 인권의식을 함양시키고, 이와 더불어 성인지 감수성을 함께 향상시키고 이를 높여 주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간호대학생들에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 4.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법의식, 인권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요소를 확인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여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권의식을 높여줄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간호대학생들에게 타인에게 차별을 금하고 평등과 존중, 그리고 자유를 인식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그 정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도 제한점은 있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 일부대학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간호학생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학과 학생들에게 확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Moneytoday, Date violent again. [Internet]. Moneytoday, c2022[cited 2022 Octver 12], Available From: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1214223231138> (accessed Nov. 10, 2022)
- [2] K. H. Ha,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Parent and Peer Factors,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and Gender Sensitivity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xuality Education*, Doctorial Thesis, Graduate School of Silla University, Pusan, 2018.
- [3] Sisa Journal, Sex crimes occur once every two days in Korean universities. [Internet] Sisa Journal [cited 2022 October 6], Available From: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696>
- [4] KyungBuk Daily, Sentenced to 30 years in prison for murder of Andong City Hall woman server. [Internet] KyungBuk Daily [cited 2022 October 13], Available From: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40722>
- [5] KyungHang News, Arrested and indicted for killing wife in broad daylight after 'reporting domestic violence 4 times'. [Internet] KyungHang News [cited 2022 Noember 02], Available From: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11021321001#c2b>
- [6] J. W. Jeong, E. A. Lee, "Gender Training to Enhance University Students' Gender Sensitivity- Focusing on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2, No.5, pp.11-35, 2021. 8.

- [7] K.S. Joo, K. M. Kim, J. P.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ity and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s on Gender Sensitivit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6, 2020.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20.20.6.213>
- [8] Y. M. Cho, J. Y. Le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Knowledge, Contraceptive Attitude and Gender Suscepti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9, pp.221-228,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9.221>
- [9] S. G. Kim, "Effects of Gender Sensitivity, Sexual Autonomy, Sexual Attitude and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on Sexual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8 ,pp.268-278,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8.268>
- [10] D. S. Lee, M. K. Lee, "The Influences of Gender Sensitivity and Sexual Assertiveness on Dating Sexual Violence Experience among Fe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Vol.26, No.2, pp.67-75, 2022.  
DOI: <https://doi.org/10.38083/JKNS.26.2.202208.067>
- [11] J. H. Woo, S. Y. Yoo, "The Effects of the Gender Sensitivity, the Gender Role Confli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Vol.22, No.3, pp. 41-54, 2021.  
DOI: <https://doi.org/10.35133/kssche.20210831.04>
- [12] P. Selznick, P. Nonet, H. M. Vollmer, "Law, Society, and industrial justice", Russell Sage Foundation, 1969.
- [13] M. K. Sun, "Moderating Effect of Law Consciousness Between Family Violence Experience on Dating Violence of College Students", *Korean Society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Vol.30, No.1, pp.197-222, 2021.  
DOI: <http://dx.doi.org/10.21181/KJPC.2021.30.1.197>
- [14] M. A. Lee, K S. Byun, S. J. Kang, "Nurses' Knowledge of Law, Law Consciousness, and Will to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3, No.3, pp.290-300, 2017.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7.23.3.290>
- [15] J. Y. Kim, *A Study on Typology and Influence Factors of Youth's Human Rights Consciousness*, Doctorial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12.
- [16] Legal Research Institute, Human Rights Education Basic Terms, Seoul, 2021.  
<https://www.humanrights.go.kr>
- [17] Legal Research Institute, National Human Rights Policy Basic Plan (2007-2011) Recommendations, Seoul, 2006.
- [18] S. Y. Kim, "The effect of Human rights awareness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10, No.2, pp.11-22, 2020.
- [19] J. H. Bea, H. J. Kang, "The effect of Social interest, Human rights awaren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2, 2022.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2.22.2.36>
- [20] H. Y. Kwak, *Study about the effect of law-related education on the legal consciousness of youth : focused on delinquent girls*, Doctorial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07.
- [21] Y. S. Lee, Y. J. Choi, "The Influence of a Law-Related Education Program upon Juvenile Delinqu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20, No.4, pp.359-386, 2009.
- [22] B. K. Park, *Relationship between Rearing Attitude of Par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Awarness of Human Righ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2007.
- [23] Korea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 "The Reality of Sexual Violence and Countermeasures through Adolescent Sexual Culture", Seoul: Korea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 2006.
- [24] S. S. An, I. S. Kim, K. M. Kim, "Development of the revised Korean gender equality awareness test (I): basic research on test validation", Seoul, Korea Women's Policy Institute. 2016.
- [25] S. W. Jung, M. S. Lee, "The Effect of Age on Legal Consciousness : Focusing on a Comparison of the Law-abiding Indicator and the Anti-Discrimination Indicator", *Law and Society*, No.70, pp.1-26, 2022.
- [26] S. R. Ahn, Y. G. Noh, "Effects of Empathy Ability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on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45, No.1, 2020.  
DOI: <https://doi.org/10.21032/jhis.2020.45.1.30>
- [27] H. J. Kwon, S. J. Shin, "The Effect of Adolescent Sexual Media Literacy and Sexual Permissiveness on Gender Sensitivit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34, No.1, pp.22-34, 2020.
- [28] Y. S. Kim, Y. A. Kim, "The Effects of Psychosocial Maturity and Sexual Attitude, on Gender Sensitiv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Vol.6, No.2, pp.345-353, 2022.  
DOI: <https://doi.org/10.33097/JNCTA.2022.06.02.345>
- [29] E. J. Seo, S. J. Jeong, J. J. Yoon, R. Y. Ju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and Gender Sensitivity in University Students upon Creativit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2, 2020.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0.20.12.71>

- [30] Y. M. Yang, M. O. Cho, K. H. Beck, "The Effects of Sexual Attitude and Sexual Knowledge of Nursing Students on Gender Sensitivit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1, No.6, pp.55-63, 2021.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06.055>
- 

조 영 미(Young-Mi Cho)

[정회원]



- 2014년 12월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간호학 석사)
- 2019년 8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질적연구, 한방간호, 간호교육

---

김 순 희(Sun-Hui Kim)

[정회원]



- 2006년 8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23년 2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관심분야>

아동간호, 중환자간호, 북한이탈주민간호, 질적연구